

# ‘GTX 시대’... 광주·전남엔 신규 광역급행철도 사업 없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윤대통령 “30분 출퇴근·교통격차 해소... 본격 GTX 시대 열겠다” 지역별 광역급행철도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포함... 호남은 빠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재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도 지역별 광역급행철도 ‘x-TX’를 도입하는 등 전국에 ‘GTX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연장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향후 사업비 분담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내용 중 광주·전남지역의 신규 철도사업이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날 “총사업비 134조원이 투입될 윤석열 정부의 교통 대책에 전남도가 요구한 광주·화순 광역

철도 등 신규 철도 사업을 단 1개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포함된 33개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34조원이 투입될 사업 중 광주·전남에서 추진될 사업은 기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과 ▲2002년부터 추진된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건설사업 ▲2018년부터 추진된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등 4개만 반영되었을 뿐 신규 사업은 단 1개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GTX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자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핵심 사업인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사업’에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등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등 2개 권역에서 추진될 사업만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호남은 제외된 채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 계획을 발표해놓고, 어떻게 전국 GTX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 뒤 “윤 정부가 올해 수립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흥 우주선 철도, 보성-화순 철도, 전남권 광역급행철도, 북포-보성 남해안철도 등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도 현재 추진 중인 3개 광역철도 사업인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광주와 화순(능주)을 잇는 18.5km(예산 7440억원) 광역철도, 보성과 화순(능주)을 연결하는 33.0km(예산 1600억원) 전철화, 임성역과 목포역 7.5km(예산 2700억원)를 잇는 호남선-남해선 연결선 등 3개 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최권익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국힘 비대위원장들 “윤·한 갈등 봉합... 당정은 원팀”

### 후폭풍 차단·수습 국면 힘 신기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조성됐던 갈등이 봉합됐음을 부각하며 ‘당정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갈등 사태의 후폭풍을 차단하고 수습 국면에 힘을 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에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신 것을 알고 있다”며 “비대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고 이를 수습하면서 허비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며 “어려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 교체라는 절실하면서도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가

능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갈등과는 달리 깊은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똑똑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국민의힘은 답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비대위원도 최근 지속된 한파 상황에 빗대 “며칠 정말 많이 추웠다”며 “비대위 회의를 하나씩 하시나 따뜻하고 참 좋다”고 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명품 가방 논란에 “입장 변화 없다”

### 김경율 위원 사퇴 거론에도 “그런 요구 없다” 선 그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에 대해 “제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 한 부분이 있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즉각 거절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사이에 불거진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라고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를 지역구 ‘사천’(私藏) 논란으로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실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대해선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

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전남에도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이른바 ‘윤·한 갈등’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윤·한 갈등’을 완전히 봉합할 카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내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배경을 묻자 “(쇼펜하우어처럼) 명랑하게 살고 싶어서”라고만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배현진 의원 괴한에 피습...병원 치료 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구)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경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 배 의원 측은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배 의원 습격범을 현장에서 체포,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

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 습격당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인이 배 의원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